

"나에게 맞는" 투자란? = [234] [456+] 설명

"숫자로 투자하라" 유튜브 채널을 오래 보신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최근 유입되신 구독자/회원 분들을 위해서, [234] vs. [456+]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가장 먼저 어떤 투자를 하던,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화면 보이는 6가지 카테고리는 리스크패리티 교육 시리즈에 등장하는 "나에게 딱 맞는 리스크패리티 투자 비중 & 활용법" 영상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1. 연령
2. RP 전문성
3. 멘탈 (수익률vs.변동성)
4. '정통' RP에 대한 신뢰도
5.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
6. RP 외의 투자 대안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대중에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니,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고려해야될 사항으로, 1번 (연령)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카테고리 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운용사들이 열심히 마케팅하는 TDF도, "연령"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투자자를 구분하는 접근이죠. (참고로 저는 TDF는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숫투 영상 / 티쳐블 자료 등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도 연령별 구분인데요:

- **[234]** = 현재 20, 30, 40 초반 분들로, 아직도 은퇴까지 최소 10년 ~ 거의 20-30년은 남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456+]** = 현재 40대 후반부터 ~ 60대 이상으로, 은퇴까지 10년 이하,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FIRE 족 / 조기 은퇴 희망자** = 하지만 굳이 연령이 아니더라도, 30대 후반 이라도, 당장 4-5년 후에 파이어족 시작을 원한다면, 이 [456+] 카테고리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 **미성년 자녀를 위한 투자** = 최근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 자녀의 포트를 운용해주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투자의 열매를 누리기 까지 수십년이 남은 경우"이니, 역시나 [234] 카테고리를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전체]** = 그리고 종종 영상/분석 자료 끝에 "[전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이걸 [234], [456+] 상관 없이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투자 차이

그럼 얘기가 나온김에, 각종 운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 투자자의 연령, 혹은 은퇴/FIRE까지의 남은 기간을 중요한 변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건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견뎌낼수 있느냐?"입니다.

향후 1-2년 내에, 2008 금융위기, 한국의 98년 IMF 위기 같은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렇게 큰 위기는 보통 주가지수를 반토막 내고,
- 심지어 평소 우량 채권으로 여겨지던 각종 채권들도 신용 손실을 입게 됩니다.
- 그리고 이런 하락이 회복되기까지는 짧아도 1-2년, 길면 10년 이상까지도 그 파급력이 갈수 있는 데요.

[456+] = 만약 은퇴를 2-3년 앞선 상황에서 이렇게 큰 경제 불황기를 맞는다면, 여태 투자한 금융 자산을 활용해야되는 타이밍에 (보유 자산 매도, 혹은 배당/이자 수취)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234] = 반면 아직도 10~3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은 젊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설사 ~5년 이상의 장기 침체기가 이어지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 중간 이런 시장 변동이 계속 와준다면 --> 오히려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죠...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입장 때문에, [456+]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투자에 더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은퇴가 점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을 높이는게 현명하고,



- 배당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미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분산의 정도도 매우 높아야하는데, 배당주 기준으로 최소 100~200주의 많은 종목 갯수 뿐만 아니라,
- 지역/산업/통화 등의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 저는 여기에 리스크패리티 (자산배분) 개념까지 적용해서, 부모님 배당포트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젊으면 아무거나? 무조건 "고성장"?

그렇다고 [234] 카테고리가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되는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234] 카테고리니까 고성장주만 투자해야지"했다가,

- 2000년대 IT버블 붕괴 당시 줄도산한 인터넷 주식들
- 2022년에 모두가 떠들어 대던 메타머스 테마주,
- 심지어 처음들어보는 코인 같은데 투자했다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십년의 시간"이 있더라도, (가격 변동이 아니라) 완전한 가치증발/원금 손실 영역에서 돈을 날리면 의미가 없어지기에, 어차피 이 경우도 현명한 투자 / 분산투자의 중요성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리는 것이 여기선 특히나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단기의 고수익을 낼수 있는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신중한/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연령대가 낮으면 ([456+]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과감한 + 당장의 배당 보다는 중장기 퀄리티를 따져가면서 투자 할수 있다는 것이죠.



홍성현's 접근법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의 배당 포트는 [456+]이고, 제 개인 포트는 [23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리서치까지도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블로그/티쳐블을 통해서:

-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배당 투자 전략
- 리서치 하는 종목 숫자 분석 (해외 가치주, 성장주)
- 투자 거장들의 매크로 판단 등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참고할만한 링크들을 달아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체] = 연령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도움 되는 내용들:

- ✓ 왕초보 투자자 필수개념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basic>
- ✓ "홍성현의 배당투자"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inv>
- ✓ "숫자로 투자하라" = 유튜브 채널 (배당투자, 퇴직연금)

[456+], FIRE족, 배당투자자:

- ✓ 현명한 배당 투자자 교육 시리즈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wiseinvestor>
- ✓ 리스크패리티 교육 시리즈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riskparity>
- ✓ 리얼티 인컴의 장단점 냉철한 분석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realtyincome>
- ✓ 채권투자 기본기 = <https://hongandcompany.teachable.com/p/bond>

[234]:

- ✓ "홍성현의 가치평가" = 유튜브 채널 (AI/빅테크 기업 숫자 분석, 파이낸셜 모델 가치평가)
- ✓ AI 투자를 위한 숫자 분석 = <https://wst.teachable.com/p/membership>
- ✓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rame8717>